

환경분야 국비 6천439억원...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실현

기후위기 대응부터 자원순환까지 환경 인프라 전방위 강화 우수한 생태자원 체계적 보전·관리 등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전라남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환경분야 국비 6천439억 원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수질·대기 환경 개선, 물관리, 자원순환 분야, 자연환경 보전 분야를 핵심 축으로 한 환경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 확보 사업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수소 승용차 보급, 대기환경개선 등 95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노후상수도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5천10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순환매립지 정비사업 등 346억 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12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

현 및 청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817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1만 672대, 수소자동차 482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200기를 설치하는 한편, 수소충전소를 기존 11개소에서 14개소로 조기 확대해 친환경차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107억 원을 투입해 운전자 배출가스 저감과 중·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을 추진, 대기오염 핵심 배출원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전남도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분야 국비 346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과 함께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를 본격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신규 반영된 광양(IV단계) 공업용수 공급사업(총사업비 2천128억 원)은 산단 중심화 심화되는 동부권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에 10만 6천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무안 창포호 유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전남도는 당초 국비 11억 원에서 9억 4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0억 4천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 총 40억 8천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밖에도 습지·갯벌 등 전남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과 환경교육 기반을 확충해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청정환경수도 전남을 만들어 도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2024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고용부 평가서 17개 시도 평균보다 7.4점 높은 73.1점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총점 73.1점(가점 제외)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8년부터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유도·확산하기 위해 매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일(근로·휴가시간, 유연근무제) ▲생활(여가·가사 시간) ▲제도(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자체 관심도(조례, 홍보) 등 4개 영역과 가점을 포함해 총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이뤄진다. 2024년 일·생활 균형지수는 65.7점이며 전남은 이보다 7.4점 높은 73.1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해도 9.3점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일·

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을 통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지속적 확대, 2024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 균형 실천다짐 대회' 개최, 일·생활 균형 유공 표창 수상 등 전남도 차원의 정책 추진 성과가 반영된 결과다.

전남도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성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전남형 맞돌봄·맞살림 프로젝트 '페어패밀리' 추진, 경력이 음바우치 지원,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더 넓게 확산해 도민이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필요성 국가도 인정

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7개소 선정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정책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 받았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12월 30일 발표한 '2025년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천178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은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진도군(주거 단지 속 청년의 희망) ▲고흥군(북향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신안군(도서관과 가족센터를 품은 아파트) ▲영암군(고령자 복지주택과 공존하는 아파트) ▲곡성군(수영장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강진군(스포츠 테마존을 품은 아파트) ▲장흥군(숲을 품은 아파트)이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 건설형 방식으로 기획한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용적 주거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및 인구 유출이라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 군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모 서류와 발표 자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와 군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 대

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는 총 530호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총사업비 2천157억 원 중 국비와 용자가 포함되면서 도비 부담은 당초 계획의 약 4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고, 평수도 넓게 공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생활 접근성이 높은 '슬세권' 입지를 선정하고, 아이 양육을 고려해 33평형대 넓은 면적으로 설계하는 등 실제 정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 지역을 9개 군까지 늘려 공급 규모를 최대 1천280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도 총 2천908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형 만원주택이 청년층의 욕구와 정부 정책 기조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결과"라며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형 주거 모델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고흥, 해수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

AI·데이터 기반 미래형 수산업 구축에 1천900억 확보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남 고흥군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수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이다. 새정부 초혁신 15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산업의 구조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해수부 주관 공모에서 고흥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1천9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AI·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쿠아팜 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현한다.

공모 신청에 앞서 전남도는 육·해상 10만 평 이상 규모의 사업부지 확보 여부 등 공모 핵심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타 시도 대비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육상 시설 조성 부지 확보 현황, 해상 양식장 조성 관련 어업인 동의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도 자체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고흥군을 전남도 공모 선정 대상지로 확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고흥군을 거점으로 스마트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축적된 기술과 성과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은 전남 수산업이 AI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고흥을 중심으로 스마트수산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어업인 소득과 지역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기반

양식 기술 고도화, 스마트수산 전문 인재 양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남을 대한민국 스마트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종필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